

4회 :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내면 풍경

[4 회]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내면 풍경



2007년 5월 14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제 발표 : 임상수
(영화감독, <그때 그 사람들>, <오래된 정원> 외)

토론자
김봉석 (영화평론가)
강유정 (문학평론가)

“나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유령, 여전히 여기 저기를 배회하는 유령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 사실 취지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했던 것 같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별 거 아니다’는 평가를 했었다. 겉으로는 ‘박정희를 더 맵게 씹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다. 박정희를 완전히 장사지내는 영화였기 때문이다. 감독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나쁘게 그리는 것은 쉽지만 역지로 아무런 편견 없이 객관적인 척 하고 그렸던 것이다. 아무 편견 없는 사람들이 봐도 박정희를 욕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야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4회 :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내면 풍경

임상수 (영화감독, 〈그때 그 사람들〉, 〈오래된 정원〉 외)

나는 1981년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이번 기회에 81년서부터의 개인적 회고를 해보겠다. 81년도에 입학해서 군대 다녀오고 86년, 87년에 3,4학년을 다니고 졸업했었다. 빛나는 청춘을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냈다. 나는 사실 운동권이지는 않았고 외로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심하게 '왕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경멸도 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조속했다. 나름대로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로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이한열씨가 최루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 때 나에게 이한열씨의 시체를 지키는 일 때문에 사수조를 꾸민다고 나오라는 권유가 있었다. 박종철 씨 사건 때 경찰 쪽에서 시신을 화장해버린 경험 때문에 시신을 지킨다고 했던 거였다. 무시했다. 장례식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었다. 당시 나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때 영화공부를 하려고 프랑ს유학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회현동에 위치한 알리언스 프랑스에 다니고 있었다. 회현동에 있었기에 시위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전을 같은 것, 이런 게 혁명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과장된 느낌을 받기도 했었다. 혁명이라는 게 대중 감정의 과잉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에 감안했지만 말이다.

거리에 나가게 될 때,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생전 테모를 안 하던 여학생들도 거리에 나가는데 나를 끌고 가서 구경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 때 거리에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운동권이나 생전 처음 온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우리 세대는 그런 식의 회열을 피부로 느꼈었는데 우리보다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는-아름다운 기억이었고, 정의가 솟구치는 경험이었는데-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를 두고 생각해보자. 이 영화 내놓고 두 번 놀랐다. 첫째는 영화 관계자들 입장과 보수 세력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관사의 판결에 감동 먹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짜낸 그 판사, 아마 무지 고민 많이 했을 거다. 네티즌들에게는 검열이라고 욕먹고, 보수 세력들한테는 소심하다고 욕먹고, 그 심경 이해가 간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언론의 호들갑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온 나라가 법석을 떨 만한 정치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구석에서 상영하고, 소규모로 논쟁할 만한 정도일 뿐이다. 그런 영화가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대가로 필름을 잘라야만 한다는 건 비극이다. 누가 단지 영화에 불과한 '그때 그 사람들'을 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었을까? 나는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성을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정치 지형에 이 영화를 대입하면 고도로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내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대듯이 정치적인 포화를 '꼬마 감독'에게 퍼부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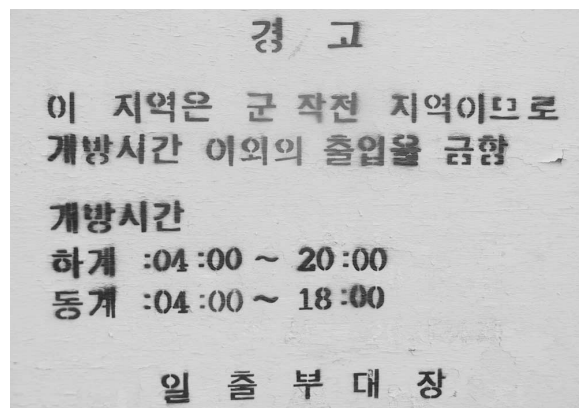
박정희의 딸 박근혜 씨가 나오는 다큐멘터리 부분도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긴 했다. 하지만 명백히 그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다큐멘터리 부분은 영화적으로 정교하게 계산해서 편집했다. 이 영화는 박정희의 죽음에 관한 영화다.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사람들은 박근혜가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태극기에 싸인 박정희의 관이다. 그 다큐멘터리는 박정희의 관이 무덤에 탁 내려앉는 그 순간 끝이 난다. 그 관 속엔 내가 찍은 픽션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 인물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찍었다. 너무도 불행하게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퍼스트레이디이자 장녀인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도발적인 소재와 표현으로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다.

박근혜가 소복을 입고 그 관 옆에 있는 것뿐이다. 그걸 내가 CG로 지울 수도 없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독재자지만 한국 근대화를 일으킨 근대화의 아버지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며 검소했다. 미국과 일본에 큰소리 뽐냈던 민족주의자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그 이미지와는 다른 박정희의 진실을 쓰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건 모두 조작된 이미지였다는 뜻이다. 그는 18년 동안 이미지를 조작했지만 단 하루 그럴 수 없었던 날이 있었다. 단 하루, 모두가 박정희에 관해 사실 보도를 해야 하는 날이 있었다. 그게 10월26일이다. 박정희가 죽은 날. 그가 뭘 하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총 맞아 죽었는지는 보도를 해야 할 거 아닌가. 나는 그날이 대중에게 박정희의 진면목이 드러난 유일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마, 뜨거워라, 이런 진실이 나타나다니, 하면서, 누군가 그 진실을 바로 물어버리고, 사형시켜버리고, 자물쇠 채워서 또다시 25년 동안 숨겨왔다. 그런데 누가 숨기고 누가 조작했는가? 박정희 정권에 한발 담그고 이미지 조작해서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재벌들, 고위관료들. 그건 박정희의 진상이지만 자기네 진상이기도 하다. 그 진상을 계속 숨겨서 잘 먹고 잘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영화로 일말의 진실이 드러나니까 비난을 해댄 것이다.



박정희 군사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 사회의 경직된 권위주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담담하게 그저 보여주려고 생각했다. 주장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추악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할 의도도 없었다. 내가 사실을 보여주면 그 사실이 생각을 낳을 거라고 기대했다.

만약 그날의 진실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면, 물론 나는 아름다운 것이 없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박정희도 찬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것처럼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나보고 정치성이 없어서 비겁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보여주는 것 이야말로 강력한 정치성이 있다고 믿는다.

물론 나는 여전히 개인주의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구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매우 개인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이고자 노력한다. 나는 어떤 조직이나 이데올로기वाद도 무관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번 영화와 전작들이 세계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다를 게 별로 없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보니 말이다. 나는 운동권이 아니었고, 대학 시절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았고, 이른바 386으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궤적을 걸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 나 같은 타자가 냉정하고 재미있게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극연출가 이상우 선생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우리 70년대 학번이 해야 했던 이야기인데” 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못한다. 나는 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모든 권위 혹은 권위주의를 철저하게 경멸한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임상수가 이렇게까지 존경심이 없다는 데 당혹해한다. 좌파와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그런 걸 보면 나는 묘한 쾌감을 느낀다. 경멸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경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롱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조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뿌리 깊은 속성부터 아무런 존경심이 없다. 그 근원은 내 부친이다. 그는 존경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에 대해 가지는 질투가 있었지만, 나는 한 세대를 겪고 나오면서, 그 질투를 정확하게 걸러냈다. 그의 경멸만을 물려받았다. 경멸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만큼도 존경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허투로 존경받고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 말이다.

나는 운동권이 아니었고 사회과학서적 한권 읽은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진실이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건 박정희가 와이드하게 펼쳐놓은 가치관이다. 뽐이고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데, 계속 뻔뻔스럽게 뻔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박정희였고 김종필이었다. 이젠 정치 이전에 진실성의 문제다. 좌파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인간과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고 집에 가서 오늘도 뻔 많이 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뻔을 걷어내자는 거다. 그건 정치성을 논하기 훨씬 이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됐다.



광주 민중 항쟁 및 80년대의 기억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갈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 [오래된 정원]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이 영화 개봉 후에 <씨네21>에서 아드리앙 공보라는 프랑스 평론가의 글을 읽었다. '한윤희는 프라다를 입은 운동권 좌파 같다. 초기작 공리처럼 풀내음을 지녀야 하지 않았느냐'며 내 영화를 비판했다. 프랑스 평론가가 중국의 모델을 들먹이며 한국의 영화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정수' 아닌가? 그런 오리엔탈리즘이 아직도 생생히 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래된 정원>의 윤희나 미경 등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관객들을 상상하며 찍었다. 물론 내 진심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도 내 진심은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간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추모였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영화를 극찬한 이들도 <그때 그 사람들>을 슬픔이나 추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래된 정원>도 흥행이 참패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자면, 이른바 민주화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중요하다. 내가 앞의 영화들을 찍은 것은 87년 6월 항쟁의 빛나는 투쟁이 없었다면 감히 찍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영화를 찍는 사람들 중 하나는 '조용히 있다가 괜히 찍으면서 갑친다'고 말하기도 한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빛나는 시대를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에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이다. 100분 동안 영화 속에서 '박정희 시대 18년'을 상징적으로 담으려고 했다. 실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명령과 복종, 계급, 위계질서로 이뤄진 인간관계 말이다. 따라서 명령에 대해 회의하거나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사람은 존재가 불가능한, 도태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그린 영화였다. 그 영화를 이제 와서 만든 것은 그런 요소들이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속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 영화가 재판에 의해 앞뒤가 잘렸는데 사실 뒤에 잘린 다큐멘터리 부분이 붙어 있었다면 내 의도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 영화에서 그 때 그 사람들의 유령, 여전히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유령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 사실 취지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했던 것 같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별 거 아니다'는 평가를 했었다. 겉으로는 '박정희를 더 맵게 씹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다. 박정희를 완전히 장사지내는 영화였기 때문이다. 감독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나쁘게 그리는 것은 쉽지만 역지로 아무런 편견 없이 객관적인 척 하고 그렸던 것이다. 아무 편견 없는 사람들이 봐도 박정희를 욕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야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내가 가진 의문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던 것 중의 하나는 제가 넘겨짚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 때 청와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편적인 남자들의 인간관계가 아니었을까. 소위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암암리에 있었던 게 아닐까. 사실 암암리 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해 했던 건 아닐까. 조중동에서 약속한 듯이 집중포화를 날 리면서 영화를 비난했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음모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다루는 임상수라는 애가 있다며? 개 죽여!’ 라는 소리가 편집국에서 들렸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쓴 살벌한 비평들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마음속에 없는 글을 쓴 것 같지 않다.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불쾌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영화는 그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영화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하자면, 먼저 우리 사회에는 ‘골목대장 문화’ 같은 게 있다. 유치한 것이다. 유치한 위계질서이다. 이 영화는 완전히 골목대장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골목대장 같은 문화가 얼마나 극복됐는지 물어보고 싶다. 한화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너무 심해서 예를 들기도 좀 그렇지만 여전히 명백히 골목대장식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창동감독이 문화부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직원들과 만나는데 너무나도 도열해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우리가 조폭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과의 관계, 회사, 가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곳이 많고, 언론사라는 곳은 자유로운 척 하지만 그곳의 위계질서도 촘스롭기 그지없다. 예술관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선생님 한 분 계시면 ‘꼭듯이 모시는’ 사회이다. 평론가들도 감히 반론 한번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세련된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겠는 가라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만연한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말 문화’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렇게 치졸하고 쓰레기 같으면서도 말로는 민족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류의 거짓말 말이다. ‘하늘이 알고 니가 알고 내가 아는데도’ 뻔뻔히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이 통용되는 문화 말이다. 그런 게 여전히 통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씨 사건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도 그렇다. ‘다 네가 옳다. 하늘이 알고, 니가 알고 내가 알지만, 그렇지만 너는 죽어줘야겠다’라는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문화 말이다. 그런 식의 멘탈리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얼마 전에 은퇴한 정치인이 있다. 오일육서부터 기회주의자로서 계속 정치적으로 천수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권력의 정점까지 이르지 못한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생겨난 모든 악행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이자 방조자였던 사람이다. 돈도 많아서 피카소그림 보고, 조니 워커 블루 아니면 안 마시고, 한자성어로 고상한 말 하면 기자들이 다 써줬던, 정말 쓰레기인데 우아한 말만 뱉어내며 국민들을 꾸짖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있다. 정치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일반 우리에게도 전염돼서 내면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의 대표적 위기가 언론인 거 같다. 프랑스 대선에서만 봐도 언론재벌과의 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미국에서도 언론재벌들이 사람들을 세뇌할 때가 많다. 한국에서는 그보다 낮고 천박한 수준의 언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내가 당한 것도 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촬영했었다. 공개리에 찍었을 때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 촬영을 마칠 수 없을까봐 그랬다. 어떤 정치가가 ‘그 영화 비밀리에 찍었다던데,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는지 어쨌는지 언론에 그대로 표현이 돼서 나왔다. 한 번 설명하면 다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말이다. 한 번만 건너뛰어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사회, 논리를 벗어난 사회다.

6월항쟁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분명히 시스템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룬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구언론이나 보수를 비난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 민주진영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평자들은 내가 인간이란 존재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86세대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주문과 압박이 많았을 텐데 그런 작업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원이라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정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타자였기에 그런 것들을 복원해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다.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을 만들 때 '박정희가 죽은 지 25년밖에 안됐는데 빠른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적절한 선? 적절한 시기? 이런 것은 누군가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한 번도 그런 고백과 정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계속 우리의 삶은 이상하다. 어딘가 계속 구멍이 난다. 이 구멍을 메워나가는 일도 해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프랑스 평론가가 이 캐릭터를 '프라다를 입은 좌파'라고 말했다. 그 캐릭터는 초창기 장예모영화의 공리 같은 여자여야 했는데 프라다를 입은 좌파가 웬 말이나고 말한 것 같다. 한국의 평론가에 의해서도 들었던 이야기다. 영화를 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랑 맞나'를 점검하는 작업이 아니지 않나. 소설과 다르게 묘사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지식한 사회주의자 운동권 남자를 촌스러운 아저씨라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앞서가는 세련된 여자라고 그리고 싶었던 것뿐이다. 몇 십 년씩 앞서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촌스런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리고 싶었다.

운동권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후 뭘 하려고 그랬을까. 사회주의정권을 이루고 싶었을까? 그렇다면 그 정권을 이루고 난 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그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남자운동권들은 그 질문 자체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주인공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이 여성과 같이 살 수 있다면 독재정권하에서도 인간답게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나는 사실 한국사회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탈출하는 난파선이 될 것인가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

렵사리 구멍을 메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난파선으로 갈 것인지를 기로에서 있다. 사실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너무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 무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평가하고 기대한다. 그 무리에 들어있다면 작가가 되기 힘든 게 아닐까. 작품은 무리 바깥의 시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타자라고 해서 방관자라고 말하기 보다는 시선에 의해서 소설이나 영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선 토론회에서 진중권 선생의 발제를 보니 요즘 젊은이들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새로운 진영에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생각이 많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나는 기본적으로 윗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바람난 가족>에서 김인문 씨가 한국전쟁 당시 내려왔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알콜중독자고, 죽어가는 캐릭터로 나오는 데 그 아들이 바로 황정민이다.

황정민이야말로 386세대이고 이후 성공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자기 존재가 굉장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원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아이의 죽음도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민주화세력이 아주 훌륭한 수사어구로 구사했던 그 목표-청산하고 어찌고 저찌고-를 내세우긴 했는데 실제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그런 식의 가치관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는 추악한 배신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래된 정원>을 보고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도 의문이 든다. <오래된 정원>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싶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젊은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나는 임감독이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입학하면서부터 늘 87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운동권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다. 축제를 앞두고 교수님께 "선생님 대동제인데 술 좀 드



임상수 감독은 <눈물>, <바람난 가족> 등의 작품으로 한국 사회의 일상성을 집요하게 해부하였다.

시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니들이 대동의 의미를 알아” 라고 말씀을 뱌셨다. 우리에게 그 시대의 이야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우리 앞에 그 시대에 운동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때는 그랬을 거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저 ‘꼰대’로 보일 뿐이다. 그 때문에 젊은 눈으로 보기엔 타자이든 주체이든 87년을 기억하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와 닿지 않는다. 386세대는 단일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었다.

그때의 대답을 환기한다면 <오래된 정원>의 마지막에 딸이 나온다. 그 딸이 현재 대학생일 딸일 것이다. 나

는 그 영화에 나오는 딸을 좀 더 새로운 세대에 맞춰 출현시키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딸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와 자녀세대가 단절될 수 없다. 사실은 그 마지막 씬의 대사에 ‘옷차림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외곬수에 외톨이에 고집쟁이였다고 했던’ 그 묘사가 아버지, 딸, 엄마 세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의미를 두고 싶었던 것이다. 87년에 대해 떠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시청 앞에 나온 것과 별반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꼰대세대가 젊었을 때 월드컵 대신에 나온 거라고 생각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점이다. ‘정의를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골목대장문화와 거짓말문화를 청산하지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고 노무현이 취임사에서 말했다. 뻔하지만 아름다운 말이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뻔한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사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세력이 했던 일들 중에 정부 내 권위주의를 청산했던 것이 치적이라고 지적된다.

취임사 한지 5년이 지났는데 보면 청산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사

실, 이런 식의 가치 ‘정의~청산되어야한다’ 는 5년 정권 안에 될 일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야 한다. 일개 정권의 문제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뻔하고 아름다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이미 이뤄져야 했을 말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생각했을 때 그 정도도 달성하지 못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진보운동이 존재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거 하나를 달성하지 못했을까. 그 때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요즘 월드컵 경기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왜 이런 정도도 이루지 못했을까.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흘린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근태라는 사람이 그 때 당시 고문을 당해서 폭로했었다. 전기고문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데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팔뚝꿈치에 남은 딱지 같은 것들을 부인에게 전해줘서 고문 받은 사실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 풀려나고 <남영동>이라는 책을 썼다. 남영동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이다. 이창동의 <박하사탕>에서 나오는 고문장면은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 당시 고문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고문은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고문하나 없어지는 것-김근태의 <남영동>이라는 책이 없었다면 쉽게 근절되지 않았겠지만, 문제화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지만-은 무엇을 의미할까.

박종철사건이 당시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한 청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가장 큰 분노를 일으켰지만 사람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었을 때 밝혀내는 용기 있는 일을 한 것이 보통 시민에게 큰 힘을 줬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박종철사건의 교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침범할 수 없는 의견임이 내면화된 것 같다. 이런 일을 하는 대신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감옥도 갔고 고문 좀 당했던 사람들이 ‘나 운동 좀 했네’ 하면서 다녔지 ‘실제로 뭘 어떻게 당했는가’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명망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근태 씨는 개인적 고통을 기록하고 복원하여 공동체의 열망으로 확산하였다. 임상수 감독은 그와 같은 기록과 복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은 2007년 1월 14일 남영동 구 대공분실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20주기 추모식 모습.

들이 지금도 많은데, 무명의 피해자들은 서로 영웅담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좌절과 피해망상 속에서 말이다.

박완서의 소설 중에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는 소설이 있다. 수기심사를 하는데 마침 당선작으로 뽑힌 게 박정희 시대에 저 시골에서 어떻게 선거부정이 일어났나를 쓴 수기였다. 그 수기를 쓴 노인은 수상을 거절한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위원이 만나는데 그 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이 수기를 안 쓴 걸로 하겠다며 복원이 되어야 척결이 되지' 라고 한다. 나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복원하지 못하고-민주화세력들이 그냥 걸렁거리면서 즐기기만 했지 자기가 겪은 일들을 복원해내지 못하고-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 많은 피를 흘리고서도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병진의 <보안사>도 보자. 일본 유학생이 간첩혐의로 보안사에 잡혀 들어갔는데, 아

무리 영터리로 엮으려 해도 간첩으로 엮기 힘들어서 대신 일년간 보안사에서 일한다. 조금 더 쉽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 재일교포를 통역해주는 일이었다. 일년 내내 간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쓴 책이다.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이나 권인숙의 <대한민국은 군대다>, 장선우의 <꽃잎>, 이창동의 <박하사탕>등을 보라. 민주화를 이루고 나쁜 가치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것,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것은 그 시대를 복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과거에 대해 고백도 못하고 대면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뭔가를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명망가들에게 묻고 싶다. 자기 복원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떠드는 행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압축성장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압축성장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너무 앞으로만 가다 보니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값은 제대로 치르고도 대가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고백을 통한 과거 복원이 어려운 이유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의 차원을 벗어나 내면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일 것이다.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운동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더는 보고 싶지도 않다' 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 때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불쾌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 동료들 욕하게 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감히 역사를 청산한다고 운운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도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 싶다. 자신의 존재부터 추슬러야 하는 사람들이 역사 운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위 자기 고백을 통한 과거의 복원이 무슨 말이나면, 예를 들어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지주계급과 농노계급간의 서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정세에 따라 국군이 점령했느냐 인민군이 점령했느냐에 따라 처절한 보복들이 이뤄지면 학살이 된다. 학살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큰 학살이었다. 그 때 지주계급들이 모두 기독교신자였고 다 남하했었다. 김일성은 기념관을 세우면서 이 학살이 미군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하며 과거를 봉합했다. 가짜로 복원한 거다. 황석영이 그 소설을

쓰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복원을 해나가는 작업이다.

한국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설은 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상처가 대물림되어서 한국전쟁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겨레21에 책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한국전쟁당시 서울의대생이었던 여학생이 인민군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을 접수한 인민군의 태도야말로 국군의 태도보다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의 의로운 생각이었지 사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간첩으로 몰리는 등의 고생 끝에 의사로 평생을 산 사람이 80이 다 된 순간에 쓴 책이다. 고백을 통해 자기 복원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보다 자기 자신의 불안을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라는 소설이 있다.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네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저자 이혜리가 1912년 평양에서 태어나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겪어낸 자기 외할머니의 개인사를 그린 책이다.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달아주고 그 옛날 그 끔찍했던 일들을 울며불며 풀어낸다. 할머니는 빨개진 눈과 코를 훔치며 한탄하고 저주하고 기막혀하고 뉘우치며 얘기를 들려주고, 배꼽티의 외손녀는 같이 울며 듣고 적고 책을 써낸다.

내게 그건 일종의 곳으로 보였다. 하고 나면 그 어쩔 수 없었던 상처들과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훌기분한 한 숨을 토하고 코맹맹이 웃음을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리하여 몽매한 야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타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 말이다. 저자와 같은 또래인 나로서는 내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그런 식의 얘기를 나누는 걸 상상할 수 없다.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니까.

30대 중반의 여인이 4명의 어린 자식을 데리고 걸어서 한겨울에 평양서 대동강과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간다. 다시 가축 운반용 열차보다 못한 고물 기차를 여러 날 타고 부산에 도착한다. 여정에는 죽어 자빠져 가는 사람 투성이다. 헤어진 가족을 찾는 쪽지로 도배가 된 부산 창진 교회. 하릴없는 영양실조의 수많은 피난민 남성들이 이제 막 도착한 그 다섯 명의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두고 온 어머니와 처자에 대한 회한과 죄

의식을 숨긴 공허한 슬픈 눈빛들. 그건 그 여인의 남편의 모습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한 번도 그 속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 따라서 한 번도 위로 받은 적이 없는, 그리하여 여전히 죄의식과 상처에 시달려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일그러진, 가엾은.

책을 읽으면서 난 문득 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느꼈다. 이틀테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수난들에 관한 그 많은 영화나 책들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피눈물로 겪은 20세기 가장 추악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침묵해오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 미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무슨 짓을



역사적 기억의 복원과 우리 사회의 집합적 내면을 성찰을 통한 진정한 화해로부터 문화 민주주의는 새롭게 출발한다.

해서라도 나만은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참혹하다. 하지만 그건 우리 현대사를 통해 살아남은 모든 사람의 심정이기도 하다. 그 참혹한 심정을 오롯이 고백해내는 일은 피로운 노릇일 수밖에 없고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제 세월은 많이 흘렀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이 묻어둔 그 참혹한 심정은 어떤가. '어차피 개판인 세상, 나만 정직하면 뭐해? 어떻게든 크게 해먹고 땡땡거리고 살자' 라는 심정으로 면면히 대물림되고 있지 않은가? 21세기가 어찌구, 정보화 혁명이 저찌구.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주민의 비참한 심정으로, 참혹한 피난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서바이브'를 하는 게 목적인 사회인 것 같다. 자기청산이 필요하다.

강유정 (문학평론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현재를 위하여 과거를 제대로 대면해야 되고, 제대로 대면하기 위해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듯하다. 복원되어야 될 역사라는 것이 현재를 재구성하는 소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고백이라는 것을 내면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작품 안에 감독의 모습이 없다. 감독은 바깥에서 들여다보며 냉정한 관찰자의 모습을 한다. 고백이라는 층위가 말하자면 남에게 역사적 주체였었던 일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고백이라는 제의를 작품 안에서 재현하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연관된 질문인데, 80년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때 초등학교생이었다. 감독님에게 80년대가 역사학이라면 나에게서는 거의 고고학이다. 감독님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 답 변

80년대 나는 현장이 있긴 했다.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오래된 정원>을 보고 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토론할 만한 소재인 듯하다. <오래된 정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내 의도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었다. 남다운이라는 평론가가 한 말이다. 디비디 코멘터리를 하면서 한 말이다. 남다운이 한 평은 이렇다. 이 영화에서 '남자캐릭터는 중요치 않고 여자캐릭터가 중요한데 이 영화는 여자가 비로소 역사를 만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오래된 정원>이 80년대 사람들, 운동권사람들을 비꼰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남다운의 생각으로는 80년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똑똑 떨어진다고 말했다. 나도 동의한다. 그것이 내 의도였다. 싫어했던 면도 있고 좋아했던 면도 있었지만 정말 귀중하게 다뤄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바깥에 있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람난 가족>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영화는 저의 정말 내밀한 고백이었는데 말이다.

강유정

<바람난 가족>은 내밀한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백이라는 말에 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다. 고백은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남이 고백을 시키면 그것은 고백이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래된 정원>에서의 고백은 무엇을 복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고백을 통해서 말이다.

... 답 변

사실 임상수의 현대사 삼부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원래부터 기획된 것은 아니고 <바람난 가족>을 찍기 이전부터 <그때 그 사람들>을 찍으려고 했었다. 연달아 찍고 나니 <오래된 정원>을 하면 '아귀가 맞는 삼부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다. 나는 이 세 작품으로 뭔가를 해낸 듯한 느낌이 든다. 과거의 자기복원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회의가 들기 때문이다. 나는 나름대로 복원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작품은 해외에서 합작하는 형태로 국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김봉석 (영화평론가)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과거에 했는지, 그 의미를 자신이 재평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386세대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내가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그 때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에 대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소련이 무너지자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하지 못했다. 자신에 대한 진짜 고백들은 왜 이뤄지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6월항쟁이 중요하기에 창작자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안하고 있다.

정말 철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감독님은 타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다. 타자가 아니라 함은, 과거에 얽매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386세대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 순결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오래된 정원>은 일면만 보여줬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너무나도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 권력적인 욕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은 한국사회의 타자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타자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던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답 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인사이더로서 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크게 봤을 때 나아말로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별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과도하게 관계로 맺어져있는 한국인보다 시각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영화감독은 예술가라기보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지 않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생각들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보려는 건데 좀 세련되어야지 작품을 의도한 바대로 볼 수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